



식품업계
이유식도 간식도
프리미엄
L1



Life

유동가
행사·무료배송 등
설 대목 공략
L2



생산적금융·AX 속도… 은행·보험·증권 시너지로 판 키운다

2026
생산·포용·신뢰의 금융

우리금융그룹

우리금융그룹은 올해 은행·보험·증권을 3대 축으로 경쟁력 강화와 '종합금융그룹'의 역량 강화가 경영 목표다. 정부의 '생산적 금융' 정책 목표에 발맞춘 전략산업 투자 확대, 인공지능(AI) 역량 확대를 비롯한 그룹 차원의 디지털 전환(AX)도 가속한다.

◆ '종합금융그룹' 경쟁력 강화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신년사에서 “은행·보험·증권을 중심으로 종합금융그룹의 경쟁력을 다지고, 시너지 기반의 성장을 가속하겠다. 핵심사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계열사 간 협업이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행력을 높이겠다”라고 강조했다. 2024년 출범한 우리투자증권, 2025년 우리금융에 합류한 동양·ABL생명 등 비은행 계열사의 경쟁력을 강화해 지속 가능한 성장의 토대를 확보한다는 목표다.

우리금융은 4대 금융(KB국민·신한·하나·우리) 중 은행 매출 의존도가 특히 높다. 지난해 상반기 기준 우리금융의 당기 순이익 가운데 비은행 계열사가 차지한 비중은 10% 미만이다. 같은 기간 비은행 비중이 가장 큰 KB금융은 39%를 기록했다. 세계적인 금리 인하 기조와 금융권 패러다임 변화로 은행 수익성 악화 전망이 나오는 만큼, 비은행 강화는 금융권의 주요한 경영 목표다.

지난 2019년 우리금융지주 출범 이래 비은행 부문 강화는 우리금융의 오랜 과제였지만, 작년 7월 동양·ABL생명이 계열사로 합류하면서 판도가 변했다. 전년 대비 100%가 넘는 매출 성장을 기록한 우리투자증권도 비은행 이익 성장에 일조했다. 작년 3분기 기준 우리금융의 비은행 매출 비중은 18%로 성장했다. 이는 2021년 우리금융 완전 민영화 이후 최고치다.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왼쪽 세번째)을 비롯한 우리금융 계열사 경영진이 지난해 6월 개최한 '챗GPT 활용 연구'에 참여하고 있다. /우리금융

종합금융그룹 역량 강화 '경영목표' 핵심사업 경쟁력·계열사 협업 확대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 시너지 창출 동양·ABL생명 통합·체질개선 과제

80조 규모 생산적금융·상생금융 공급 AI기반 서비스 도입 등 디지털 전환 심사·상담·내부통제 등 AI 활용 확대

스테이블코인 등 가상자산 선제 대응 신사업 분야 미래 경쟁력 강화할 것

임 회장은 지난 2023년 취임 당시 비은행 포트폴리오 강화와 종합금융그룹 완성을 과제로 설정했다. 이어 지난해 말 연임에 성공한 이후 “작년과 올해 증권·보험업 진출을 통해 보완한 포트폴리오를 바탕으로, 우리금융을 시너지 창출 능력을 갖춘 종합금융그룹으로 발전시키겠다”고 목표를 제시했다.

지속 가능한 종합금융그룹 완성을 위해 우리금융의 남은 과제는 동양·ABL생명의 통합 및 체질 개선이다. 두 보험사의 완전 통합까지는 향후 2~3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두 보험사 모두 타 금융지주의 보험 계열사 대비 실적 부진과 낮은 지급여력(K-ICS) 비율을 보이고 있다.

우리투자증권의 지속적인 매출 성장도 달성해야 할 목표다. 지난해 3분기 우리투자증권은 출범 1년 만에 전년 대비 123%의 높은 누적 당기순이익 성장률을 기록했지만, 순이익 규모는 212억원에 그쳤다. 같은 기간 타 금융그룹 증권사들은 1500~5000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한 것과 비교하면 작은 규모다. 중기 목표인 중투자(종합금융투자사업자) 지정도 과제다.

◆ '생산적금융' 속도… '디지털 전환' 가속

우리금융은 올해 '고객과 함께하는 성장'을 주요 경영 목표로 제시하고, 생산적금융·포용금융 확대를 통한 고객 기반 확대도 주요 현안으로 설정했다. 우리금융이 강점을 갖춘 기업금융 분야에서 AI·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과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를 적극 확대하고, 햇살론을 비롯한 정책금융 상품 공급을 확대해 금융의 사회적 역할도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우리금융은 지난해 9월 금융권 최초의 생산적금융 프로그램 '미래동반성장 프로젝트'를 출범했다. 오는 2030년까지 80조 원 규모의 생산적금융·상생금융을 공급한다는 목표다. 우리금융은 은행·보험·캐피탈·증권 등 자회사가 출자한 금액을 자산

운용사가 운용하는 '그룹 공동투자펀드 1호'를 작년 말 출범했으며, 전략 산업·비수도권 기업을 위한 전용 상품도 상반기 내 출시할 예정이다.

우리금융은 또한 지난해부터 영업점·인터넷 뱅킹에서 AI 기반 서비스 도입을 본격화한 우리은행을 중심으로 디지털 전환(AX)도 가속한다.

앞서 우리은행은 지난해 하반기 생생형 AI 기반 'AI대출상담원'을 고도화해 비대면 대출 상담 시스템을 고도화했다. 기존에는 AI 상담원이 대출 담당 직원의 상담에 앞서 상품 정보 중심의 단편적인 정보만을 제공했지만, 개선을 통해 AI가 심사에 앞서 대출 목적과 조건을 단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지난해 말에는 자사 인터넷 뱅킹 앱에 AI 기반 '스미싱 문자 안심 서비스'를 도입했다. 고객의 휴대전화로 수신되는 문자 메시지의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의심 여부를 탐지하고 해당 사실을 고객에게 전달해, 고도화하는 문자결제사기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우리금융은 계열사의 AI 기반 서비스를 심사·상담·내부통제 등 다양한 영역까지 확대 도입하는 한편, 임직원의 AI 활용 능력도 제고한다. 또한 올 상반기 대대적인 제도 변화가 예상되는 스테이블코인·증권형토큰(STO) 등 가상자산 분야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해 잠재적 고객과의 점진적 확대한다는 목표다.

임종룡 우리금융 회장은 “기업의 성장 단계 전반을 투자·융자로 폭넓게 지원하고, 생산적 금융을 우리금융이 앞서 나갈 수 있는 핵심 강점으로 삼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면서 “전사적인 디지털 전환(AX)을 가속해 그룹의 AI 역량을 고도화하고, 디지털 신사업 분야에서의 미래 경쟁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승진 기자 asj1231@metroseoul.co.kr



▲NBA 클리블랜드, 레이커스에 129-99 대승… 5연승 질주 /사진 뉴시스
▲두산 새 외인 카메론·다무라, 첫인상부터 합격 점…“페이스 끌어올릴 것”

▲김은영 대한야구소프트볼협회 부회장, 아시아 소프트볼연맹 부회장 연임
▲골프협회, 2026 아시안게임 금메달 포상금 2000만원 지원

▲SSG 화이트·다케다, 캠프 첫 볼펜 투구…“준비 잘했다”·“커브 수준급”
▲‘2018 마스터스 챔피언’ 리드, LIV 골프 떠나 PGA 투어 복귀